

# 종교적 상상력의 시적 승화

유 성 호  
(한양대)

## 1. 종교적 상상력의 자장

대개 ‘종교적 상상력’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자장에는 두 가지의 근원적 질서가 담겨 있게 마련이다. 그 하나가 초월적 타자 혹은 궁극적 실재를 향한 강한 열망이라면,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일종의 자기 완성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가 인간으로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더 온전한 세계를 갈망하는 감각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인간 사회에서의 윤리적 갱신 의지와 깊이 연동된다.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에서도 이러한 종교적 상상력의 두 가지 질서는 한편으로는 서로 분리된 채 한편으로는 한 몸으로 결속한 채 나타나게 된다.<sup>1)</sup>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적 상상력’이 문학적으로 표현될 때는 일종의 시적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때 ‘시’와 ‘종교’는 언어 형식에서 일종의 상동 관계를 띠게 되는데, 시가 제한된 물리적 언어를 통해 근원적 세계를 파악하려는 충동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와 종교의 근원 탐구적 성격은 긴밀한 상호 인접성을 가진다. 그만큼 시와 종교의 구조적 상동성 그리고 그것들이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세계의 유사성은 ‘시’에서의 종교적 상상력의 가능성을 강렬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종교적 상상력’은 구체적 작품 속에서 영성 추구, 초월 의지, 신성 복원, 실존 고백 같은 세목(細目)으로 형상화되곤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상상력’의 세목을 심미적으로 형상화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시의 두 중진을 대상으로 하여 ‘종교적 상상력’의 시적 승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근대주의의 속약함이 절정에 달해 있는 우리 시대에 대한 대안 시학의 경지까지 암시 받으려 하는 것이다.

## 2. 신성과 인간이 통합되는 시적 승화

박이도 시인은 근본적으로 순수 서정의 시인이다. 이 ‘순수 서정’이라는 미학적 형질은 그동안 민족문학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경시했던 어떤 것이 아니다. 그동안 역사상에 나타났던 순수주의자들이 대개 냉전 의식과 반공주의로 무장한 편협한 이데올로그(ideologue)였음에 비추어, 박이도의 ‘순수 서정’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부여받을 만하다. 오랫동안 우리 문

1) 1) 유성호, 『근대시의 모더니티와 종교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8, 제2부 참조.

학의 구도가 ‘참여/순수’라는 문학 외재적 준거에 의해 편제되었던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의 시가 줄곧 추구해마지 않은 ‘순수 서정’의 원질이 바로 그 ‘참여/순수’의 전선을 훨씬 벗어난 독자적인 자리에 그 영역을 드리우고 있는 어떤 열망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형이상학의 범주 이룰데면 ‘종교적 상상력’이나 인간의 순수 원형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박이도 시인이 우리에게 선보여온 언어적 작업들<sup>2)</sup>에는 고유한 선비적 이미지나 신앙적 지향 외에도 그가 공들여 쌓아온 형식 미학적 성과라든가 보편적인 인생론적 깨달음, 한 시대의 핵심적 모순을 건디고 치유하려는 순결한 영혼의 고투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 글에서는 그의 후기 시편에 나타난 시적 자질들이 좀 더 근원적이고 우주적인 상상력 속에 커다란 스케일로 담겨 있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최근 시편 속에 펼쳐지는 ‘순수 서정’의 몸짓은 신성과 자유를 향한 수직 상승의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다. 특히 『乙淑島에 가면 보금자리가 있을까』는 ‘새’라는 하나의 상징을 중심으로 엮은 일종의 연작시적 성격을 구축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새’들은 참으로 다종다양하다. 얼핏 스케치해보아도, 기러기, 장끼, 제비, 멧새, 집오리, 딱따구리, 독수리, 종다리, 흑비둘기, 참새, 까치, 두루미, 갈매기, 타조, 뚝부기 등에 이르기까지 그가 주위에서 관찰 가능한 조류들은 총망라한 듯 보인다. 물론 그 새들은 한결같이 순결, 신성, 자유, 황홀을 지향하는 시인 자신의 외적 등가물이자, 스스로[自] 그러한[然] 자연의 모든 생명력을 환기하는 제유적 상관물이기도 하다.

아직 마음속에는  
神의 音聲일까  
깃가엔 聖樂이 스쳐오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 「꿈꾸는 파랑새」 중에서

바람에 실려 비상하는 영웅  
유유히 창공을 제압하고,  
거기에 너만의 自由  
너만의 意志가 지배하는 곳  
- 「독수리」 중에서

이 작품들에서 명징하게 보이듯이, 박이도 시편에서 새록새록 눈을 뜨는 욕망의 기저에는 바로 이 ‘신성(“신의 음성”)’과 ‘자유’에 대한 비원이 깔려 있다. 그것이 “간절한 悲願”(「갈대밭 철새밭」)인 까닭은 그가 인간의 본래적 운명으로 깨닫고 있는 유한자(有限者) 의식에서 온다. 그래서 그는 새가 상징하는 “자유, 孤高, 영원, 희망, 미래, 비전 등의 이미지”(「自序」)를 노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결핍의 형식 혹은 열망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거기 황홀한 세계”(「기러기」)에서 “野生의 세월로/ 자유의 나래를 펴”(「집오리」)는 것은, 비단 새들만이 아니다. “절벽을 날아오르는 찰나의 환

2) 2) 1962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인 「황제와 나」 이후 『回想의 숲』(1968), 『北郷』(1968), 『暴雪』(1975), 『바람의 손끝이 되어』(1980), 『불꽃놀이』(1983), 『안개주의보』(1988),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1991), 『약속의 땅』(1994), 『乙淑島에 가면 보금자리가 있을까』(2000), 『民譚詩集』(2002), 『빛과 그늘』(2006) 등이 상재되었다.

청”(「흑비둘기」)을 들으면서 혹은 “빛의 和音”(「까치집」)이나 “原始의 소리”(「딱따구리」)를 들으며 “짐승들의 생명력”(「세월을 꿈꾸는」)과 화창하는, 그래서 “神의 啓示를 得音”하여 “이 秘密한 속삭임에/말을 잇”(「得音」)게 되는 시인 스스로가 ‘새’이고 그들이 나누어 가지는 생명력이 바로 시인이 열망하는 어떤 세계의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치 뿌리를 지상에 박고 하늘을 향하는 나무의 형상처럼, 그의 ‘새’들은 삶의 고단함을 간직하면서도 궁극에서는 하늘의 밝음과 자유를 지향한다. 이때 그의 하늘은 합리적인 이성애 의해 파악 가능한 시공체로서의 우주가 아니고, 인간의 내면과 삶을 간접화하여 은유하는 상징적 시공체로 탈바꿈된다. 그 과정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형상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조류들은 물론, 우리가 흔히 가금(家禽)이라고 부르는 것들에까지 신성과 자유를 지향하는 형상을 부여하고 있다. 이 모든 의식이 그로 하여금 “자연은 진정 자유를 일깨워 주는 곳”(「자유의 노래 피콜」)이라는 자각과 감동을 갖게 하고, 을숙도의 고니에서조차 “神聖한 모가지와 날갯짓”(「乙淑島에 가면 보금자리가 있을까」)의 위엄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박이도 시인은 신성 지향의 몸짓과 자유를 향한 날갯짓을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연약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새’의 생리와 형상을 빌어 노래한다. 그래서 그의 시는 특수한 신앙적 의미나 철학적 사색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과 숙명에 대해 쓴 결과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시는 한결같이 인간과 삶의 원형에 가까운 언어적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가장 최근 시집인 『빛과 그늘』에서 박이도 시인은 자연 사물이 들려주는 소리 자질을 통해 원초적 통일성을 완성하려는 시적 기획을 줄곧 보여주는 특성을 보여준다. 신성한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고요하게 들려주는 일종의 ‘침묵의 소리’는, 자연 사물 속에서 시원(始原)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신성의 여러 흔적들을 찾고자 하는 시인의 형이상학적 열망을 충족하면서, 그의 시편을 가득 울리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들려주고 싶었던 말들은 무엇이었나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은 무엇이었나

모두 부질없는 일  
세월은 침묵의 역사

이제 더는 말하지 않고  
더는 말 듣지도 말며  
침묵하고 홀로이고 싶어  
무성한 숲속  
자연의 골짜기에 들다

내 안으로 귀 기울이면  
거친 숨소리뿐,  
생명의 숨소리 자연의 숨소리

그 다음  
정적의 순간,  
그 짧고도 영원한 순간

침엽수 사이로  
침묵의 언어가 쏟아져 내린다  
세월을 앞질러 오는  
투명한 햇살이 소리없이 꽃힌다  
- 「침묵의 언어」 전문

시인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내가 들려주고 싶었던 말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에 대해 생각한다. 이러한 ‘말(logos)’에 대한 자의식적 성찰은 매우 중요한 그만의 음역(音域)을 구성한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말들’의 운동이 결국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었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침묵의 역사”일 뿐임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말(언어)’을 버리고 “침묵하고 홀로이고 싶어”한다. 그 침묵과 고독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공간이 바로 “무성한 숲속/자연의 골짜기”인데, 일찍이 박이도 시학에서 ‘숲’은 성스러움의 발원지이자 궁극적 귀의처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 신성의 거소(居所)에서 시인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비로소 귀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생명의 숨소리 자연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때 찾아오는 “그 짧고도 영원한” 정적의 순간에 시인은 “침묵의 언어”야말로 신성의 목소리임을 “투명한 햇살” 속에서 새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시인으로서 “우리의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찰나(刹那)의 영원성을 깨달아 알고/영원을 붙잡고 가는 지혜를 알아”(「오두막집」)가는 과정임을 노래하고, “내 詩의 첫 줄은 /따뜻한 마음 속 박동치는 音樂에서 온다”(「내 詩의 첫 줄은」)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침묵의 소리’ 곧 “마음 속 박동치는 音樂” 속에서 자신의 시적 기원(origin)을 찾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박이도 시학의 밑둥이랄 수 있는 신성 지향의 에너지는 이처럼 “침묵의 언어”를 통해 신성의 목소리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말하자면 “자연의 소리를 들어 보라/귀로 듣는 가을,/거기 내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음”(「귀로 듣는 가을」)이라는 박이도의 시적 음색이 잘 정제된 형상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새벽 늪가에 앉아보니,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빛의 그림자  
물안개가 숨을 쉬고  
일어서는 몸짓

이슬 맺힌 나팔꽃이 벵그는  
그 순간의 희열이  
나팔소리처럼 허공에 퍼진다

허물 벗는 물잠자리의  
작업  
길고 긴 침묵의 소리

살아 숨쉬는 늪가에선  
눈을 감아야 모두의 숨결을 느낀다  
허물 벗는 미세한 소리  
생명의 숨결이 들린다

- 「허물 벗는 소리」 전문

여기서도 시인은 자연 사물들이 내지르는 ‘소리’를 듣고 있다. 새벽 늪가에 앉아 만물이 서로에게 화응(和應)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새벽빛의 그림자와 물안개 그리고 이슬 맺힌 나팔꽃의 모습이 허공으로 가득 퍼지면서 ‘소리’를 자아내고, 허물 벗는 물잠자리의 “길고 긴 침묵의 소리” 또한 시인의 귓속에 부드럽게 깃들인다. 물론 이러한 ‘소리’들은 “눈을 감아야 모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근대 감각인 시각(눈)을 닫으니 근원적 실재와의 교섭 감각인 청각(귀)이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허물 벗는 미세한 소리” 곧 “생명의 숨결”은 예의 ‘침묵의 소리’처럼 시인에게 부드럽게 다가오면서 신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결국 시인은 바로 그 “엄청난 音樂의 세계가/내 곁에 있었음”(「얼굴 - 음악 속의 표정」)을 고백하면서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평화의 나뉠짓”(「빛과 그늘 1」)을 영혼의 귀로 듣고 있다. 그만큼 시인은 ‘침묵의 소리’를 통해 신성과 합일된 원초적 통일성을 완성하고자 하는 시적 열망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박이도 시인이 갈망하는 곳은 신성과 인간이 단호한 격절(隔絶)을 이룬 세계가 아니라, 신성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랑’의 공간이다. 물론 그 공간은 언제나 ‘꿈’을 통해 가 닿을 수밖에 없는 미실현의 공간이고, 시인으로서의 그 열망에 대한 상상적 작업을 멈출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따라서 신성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이루는 세계를 향한 그의 심미적 상상력은, 지상에서 결핍되어 있는 가치에 대한 탈환과 회복 의지에 의해 감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가 추구하는 지상(地上/至上)의 가치는 바로 ‘사랑’과 ‘평화’인데, 시인의 종교적 상상력은 이처럼 궁극적으로 지상에서 이룩해야 할 높은 가치의 지경(地境)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손바닥의 모래 한 줍이 흘러내리듯  
손바닥의 샘물이 흘러내리듯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일체의 기억, 지금의 형상은 사라지고  
투명한 생명체가 하나 탄생한다

강가의 단단한 돌맹이들은  
부드럽고 연약한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에 의해  
억겁의 세월,  
새 생명의 형태로 거듭나듯이  
내 마음 속엔  
아름답고 단호한 의지를 품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가

닫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두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  
물과 모래와 돌맹이의 세월처럼  
내 마음 속엔 영원을 이어오는  
사랑의 씨앗 하나 있어라  
- 「사랑의 씨앗」 전문

시인은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린다. 그 “일체의 기억, 지금의 형상”들은 마치 손바닥 안에서 모래나 샘물이 흘러내리듯이 자연스럽게 사라져가고 있다. 그것들이 사라진 빈 자리는 “투명한 생명체”의 탄생으로 대체된다. 이처럼 시인은 모든 단단한 것들이 부드럽고 연약한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에 의해 오랫동안 정련되어 “새 생명의 형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묻고 있다. 이때 시인은 “아름답고 단호한 의지를 품은/새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씨앗”임을 노래하는데, 닫힌 마음을 열고 “모두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 발원하여 “영원을 이어오는/사랑의 씨앗 하나”가 바로 생명의 기원이자 궁극의 거처(居處)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박이도 시편들은, 못 대상들을 향한 우주적 연민(cosmic pity)을 통해 신성과 초월로 나아가는 과정에 서 있었다. 이러한 근원적 시선과 언어들은, 중심 설정이 끝없이 유예되는 이 차연(差延)의 시대에, 우주적 스케일의 확충을 통한 근원적 중심 설정이라는 또 다른 시적 기획을 동반한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가장 구체적인 사물들로부터 발원하여 가장 추상도가 높은 ‘신성’과 ‘영원성’을 동시에 통합하는 역동적 상상력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내리는 눈발 속에서 신성의 모습을 목도하는 다음 시편은 그 같은 박이도 시편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눈발이 날린다  
태초로부터 내린다

나의 생애만큼  
때때로 눈에 보이는 눈발은  
나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새해 첫 새벽부터  
어둠을 살위 날리며  
새 꿈  
새 기력을 돋우는  
눈발이 날린다

우리들 심성의 바탕에  
눈발이 날리듯  
새 출발할 때마다  
아이처럼  
착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거야  
- 「착한 아이처럼」 전문

“태초로부터” 내리는 ‘눈발’은 신성의 유추적 등가물이다. 그 ‘눈발’은 “나의 생애만큼/때때로 눈에 보이는” 듯이 흘날린다. 하지만 드문드문 자취를 남겨온 시인의 생애는 “새해 첫 새벽부터/어둠을 살위” 날리는 ‘눈발’을 통해 “새 꿈/새 기력”을 부여받고 있다. 왜냐하면 시인은 “우리들 심성의 바탕에” 바로 그 ‘눈발’처럼 혹은 “아이처럼” 착한 마음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착한 아이처럼’ 시인은 행복한 기도를 올리며 새로운 꿈에 짓는다.

이어서 시인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흔적’ 없는 자신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있다. 마치 명경지수(明鏡止水)처럼 그는 안심하면서 자신의 사라져가는 ‘흔적’들을 응시한다. 그

는 오히려 “서산에 지는 해를 따라/내 생의 현 구두 한 켤레 묻어 두고/홀연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흔적(痕迹)」) 하고 “내 영혼이 영원 속으로/사라져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때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재래적 지혜는 무색해진다. 그 ‘이름(흔적)’마저 사라짐으로써 ‘영원성’을 완성하는 역설의 지혜를 시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통념에 의하면 ‘소멸(消滅)’과 ‘영원(永遠)’은 전형적인 대립적 개념이다. 사물이나 현상이 순간적이고 일과성(一過性)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소멸’은 당연히 ‘영원’의 결여 형식이고, 또 ‘영원’한 것은 시간적 구속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코 ‘소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편적 사유에서 지상적·세속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데 비해, 천상의 신성한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으로 각인된다. 이처럼 선명한 대립적 의미를 갖는 ‘소멸(사라짐)’과 ‘영원(남음)’은 ‘유한성’과 ‘무한성’으로 환치(換置)되어 앞의 것은 인간적 한계를 나타내고 뒤의 것은 그리움의 형식으로 우리들 마음 속에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처럼 현저한 대립성을 띠는 두 형질을 박이도 시편에서는 독특한 시적 사유로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그 점에서 박이도 후기 시편들은 특수한 신앙적 의미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소망과 지혜에 대해 쓴 결과로 읽힐 수 있다. 말하자면 그의 시편들은 한결같이 인간과 삶의 원형에 가까운 언어적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좀 더 근원적이고 우주적인 상상력 속에 커다란 스케일로 담겨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고독한 구도적 자아를 통해서 무변(無邊)의 상상력 곧 자연과 인간, 신성과 인간이 통합되는 시적 승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3. 상처와 치유의 시적 승화

최문자 시인은 그동안 종교적 상상력의 시화(詩化)에 각별한 관심과 적공(積功)을 들이온 우리 시단의 중진이다. 그가 그동안 보여준 시세계에는, 생의 통증과 상처를 증언하고 그것을 종교적 상상력으로 견디고 치유하는 상징 제의(祭儀)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sup>4)</sup> 여기서는 그의 후기 시편들이 성서에 대한 ‘인유’로 가득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시편들을 ‘종교적 상상력’의 시각으로 읽어보려고 한다.

원래 ‘인유(引喻, allusion)’란 널리 알려진 글이나 고사(故事), 잠언, 역사, 인명 등을 작품에 인용함으로써 의미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기법을 말한다. 이때 ‘인유’는 이미 완결된 텍스트를 현재의 맥락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새로운 의미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최문자 시인은 그동안 성서를 인유하거나 성서와 일정한 상호텍스트성을 형성하면서 시를 써왔다. 그러한 인유의 방법을 통해 시인은, 성서의 맥락과 삶의 맥락을 병치하고 유추하는 상상력을 보여왔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을 통해 삶과 믿음의 복합성을 고백하고 증언해왔다. 이러한 속성은 후기로 갈수록 점증(漸增)되어, 시인은 신(神)의 의지와 자신의 실존 사이에 침예하게 개재하고 있는 갈등 양상을 뜨겁게 보여준다. 최문자 시학이 신에 대한 일방적 기투(企投)로 귀속되지 않고, 끝없이 안착(安着)과 이격(離隔)을 오가면서 긴장할 수

3) 유성호, 「김현승 시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6, 91-96쪽 참조.

3) 4) 198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후, 『귀 안에 슬픈 말 있네』(1989), 『나는 시선 밖의 일부이다』(1993), 『울음소리 작아지다』(1999), 『나무고아원』(2003),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2006) 등을 펴냈다.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복합적인 존재 인식과 상상력 때문일 것이다.

세상이 뽁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뽁이 치러 나오세요

무명 타래 엮은 줄로 나를 찡찡 감았다가

얼음판 위에 획 내던지고, 괜찮아요

심장을 퍽퍽 갈기세요

죽었다가도 일어설게요

뺨을 맞고 하얘진 얼굴로

아무 기동도 없이 서 있는

이게,

선 줄 알면

다시 쓰러지는 이게

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 「뽁이」 전문

이 시편은 신(神)과 인간 사이에 개재하는 역동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사랑’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시인은 한겨울 빙판에서 둘러졌던 ‘뽁이’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신께 호소하는 목소리를 취하고 있다. 가령 ‘나’는 세상이 온통 뽁뽁 얼어붙은 날, “뽁이 치러” 나오시라고 신께 간구하고 있다. 그 호소의 내용은 “무명 타래 엮은 줄”로 ‘나’를 감았다가 얼음판 위로 내팽개친다든가, 심장을 퍽퍽 갈긴다든가 하는 가학(加虐)의 실천이다. 그 과정 속에서도 ‘나’는 “괜찮아요”를 연발하면서, 죽었다가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뺨을 맞고 하얘진 얼굴로” 서 있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만약 “아무 기동도 없이 서 있는” 것을 선 줄로 알게 되면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sup>5)</sup>는 성서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 ‘나’는 채찍에 맞으면서 서 있는 자신의 불완전한 실존을 고백하면서, 선 줄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죽었다가 일어서는 “제 사랑”의 복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인의 신에 대한 ‘사랑’은,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내 안의 먹빛”(「철쭉제」)을 치유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취된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헌신이나 관용이 아니라, 이처럼 복합적 상호 얽힘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이 시편은 잘 보여준다.

승냥이가 몹시 그리운 밤은

5)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에서  
 칼을 꺼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시퍼런 칼 하나 쥐어주시던 하나님  
 무쇠 같은 하나님  
 무릎까지 쭉쭉 올라온 세상의 순무밭에  
 위험한 칼 하나 들려  
 무처럼 세워놓고  
 감춰둔 이리 몇 마리 이젠 내놓으라고  
 가만가만 해온 젓가락질까지  
 짐승과 섞던 눈길까지  
 스치다 잡힌 마음까지  
 목책 너머 건너다보신다  
 순무 뽑을 때쯤 해서  
 순무밭 무청은  
 달빛 타고 더욱 괴괴하게 푸르고  
 숨어 있던 승냥이  
 참다못해 목책을 넘을 때  
 어쩔 수 없어  
 수없이 칼을 꺼내는 밤  
 승냥이들은 종소리처럼 흩어졌다  
 칼 없는 자를 찾아서  
 잎새와 뿌리가 멩멍 멩멍 잘린 채  
 설레임이 끝난 순무밭  
 어지러운 승냥이 발자국 위에  
 눈물 같은 이슬만 내리고  
 - 「칼을 쓰는 밤」 전문

시인은 “승냥이”가 몹시 그리운 밤에 칼을 꺼낸다고 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해온 ‘승냥이’의 관용적 의미는 이를테면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이나 욕망 따위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언제나 “시퍼런 칼 하나”를 쥐어주셨다. 이 부분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sup>6)</sup>는 말씀의 인유이다. 시인은 그 “무쇠 같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의 순무밭에 칼 하나 들려서 세워놓으셨다고 노래한다. 마치 팽이를 빙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놓으셨듯이, 시인에게 칼을 쥐어주고 “무처럼 세워놓고” 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 속에 감춰두었던 “이리 몇 마리”를 내놓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승냥이와의 기억까지 내놓으라면서 목책 너머로 건너다보고 계시기도 하다.

김영랑의 오래된 시편에서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毒을 차고」)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야수성에 바탕을 둔 부정적 세력이었지만, 여기서 ‘승냥이’나 ‘이리’는 양가성을 가진 존재로 화한다. 바로 그때 ‘승냥이’가 목책을 넘게 되자, ‘나’는 그토록 승냥이를 그리워하던 마음을 접고 “어쩔 수 없어/수없이 칼을 꺼내”든다. 무수한 칼부림 끝에 ‘승냥이’들은 종소리처럼 흩어져 어지러운 발자국 위에 눈물을 뿌리고 사라진다.

4) 6) 「마태복음」 10장 34절.

이때 하나님은 시인에게 귀어주었던 ‘칼’은, 내 안의 어떤 속성을 향해 휘두른 ‘비수(匕首)’이자, 자신의 안쪽에 찌르고 있는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메스’이자,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양가성을 짊어지고 써갈 수밖에 없는 ‘시(詩)’이기도 하다. 그 ‘비수/메스/시’는, 신의 섭리와 인간의 욕망 사이, 그리고 가혹한 실존과 한없는 자유 의지 사이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존재를 완성해간다. 그만큼 시인에게 ‘시’는 “피 묻은 말들이 서서히 뭉쳐졌다”(「명들다」)가 “가장 슬픈 뼈 사이로 들어왔다가//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시(詩)」) 어떤 존재이다. 그러니 그 말들의 “절반은 칼날에 남아 피 흘리고 있을”(「절반의 습성」)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최문자 시인은 시집 곳곳에 “참 포도나무가 열리는 과수원/그가 만들었지만 내가 쓰고 있는 문”(「포도원」)이라든가 “유다예요/은 30냥을 받고/색깔을 지웠어요/알아요/알아요/피발으로 가고 있잖아요”(「이별2」)에서처럼 성서의 인유를 집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가령 ‘포도원’이나 ‘피발’은 신에 대한 믿음과 회의를 상징하고, 가장 풍요로운 텃밭과 가장 저주받은 피발을 함의한다. 특히 ‘피발(Akeldama)’은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돈으로 산 밭이니까, 시인으로서 “시커멓게 썩었던 힘으로 살아”(「꿈에 빠진 까마귀」)은 자신의 죄와 갈등을 고백하고 있는 현장으로 원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갭게 씻어놓은 죄를/이미 용서받은 물고기들을/밤새워 내가 끄집어들립니다”(「죄책감」)라는 표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sup>7)</sup>는 예수의 말씀과 깊이 연관된다. 이처럼 최문자 시인은 ‘떠난 자’를 유다와 ‘남은 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다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안쪽에 존재하는 갈등의 깊이와 편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 작품은 그러한 믿음의 양가성 혹은 믿음과 회의 사이에 존재하는 역동적인 긴장과 갈등을 보여주는 시편이다.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  
 피가 날 때까지 믿는다  
 금방 날아갈 휘발유 같은 말도 믿는다.  
 그녀는 낮을 가리지 않고 믿는다.  
 그녀는 못 믿을 남자도 믿는다.  
 한 남자가 잘라온 다발 꽃을 믿는다.  
 꽃다발로 묶인 헛소리를 믿는다.  
 밀동은 탄 데 두고  
 대궁으로 걸어오는 반 토막짜리 사랑도 믿는다.  
 고장난 뼈꾸기시계가 4시에 정오를 알렸다.  
 그녀는 뼈꾸기를 믿는다.  
 뼈꾸기 울음과 정오 사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녀의 믿음은 지푸라기처럼 따스하다.  
 딱딱하게 가는귀먹은  
 그녀의 믿음 끝에 어떤 것도 들여놓지 못한다.

그녀는 못 뽑힌 구멍투성이다.  
 믿을 때마다 돌아나는 못,  
 못들을 꺼안아야 돌아나던 믿음.  
 그녀는 매일 밤 피를 닦으며 잠이 든다.  
 - 「믿음에 대하여」 전문

7) 「마태복음」 4장 19절.

시를 읽어나가다 보면 ‘그녀’의 믿음이 맹목적이며 기질적이고 습관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녀’는 그야말로 ‘버릇’의 차원에서 그 누군가를 믿고 또 믿는다. 그 믿음은 미더움을 못 주는 대상들에게까지 과급되고, 극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멈출 줄 모른다. 것처럼 ‘그녀’의 믿음은 “떡떡하게 가는귀먹은” 결과이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그 어느 것도 들여놓지 못하는 허망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그때 ‘그녀’가 발견하는 것은 자신이 “못 뽑힌 구멍투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못’을 꺼안아야 믿음이 돌아나고, ‘못’을 꺼안느라 생긴 피를 닦으며 잠이 든다. 이 상처와 치유의 반복적 과정을 ‘그녀’는 자신의 실존으로 받아들인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받았던 그 ‘못’이 여기서 ‘그녀’의 고통과 치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은, 우리 시의 종교적 상상력이 주류로 가지고 있는 신성 예찬이나 절대자 의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를 못 박고 싶은/굽은 무쇠 못들이” 찾아와 “내 손바닥을”(「못의 행방」) 응시하는 과정에 대한 속 깊은 용인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다음 시편은 최문자 시인의 시적 존재론을 밀도 있게 담고 있는 대표작인데, 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상상력의 근원을 찾아 자신의 ‘시’에 대한 경험과 사유를 풀어간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定罪)하라는 군중들의 요구 앞에서 예수가 땅에다 무언가를 쓰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sup>8)</sup>고 했던 그 말씀이 이 시편 안에 녹아 흐르고 있다.

나는  
 땅바닥에 대고 시를 썼다.  
 돌짜도 흙덩이도 부서진 사금파리도  
 그대로 찍혀 나오는  
 울통불통했던 내 것들.  
 뻘뻘한 한글 자모가 나가고  
 미어진 종이 위에서  
 연필은 몇 자 못 쓰고 늘 부러졌다.  
 시에서 지금지금 흙 부스러기가 씹혔다.  
 죽었던 내 부스러기들이 씹혔다.

더 이상 세상에 매달리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땅바닥에 와 있었다.  
 죽은 꽃잎에 대고  
 죽은 사과 알에 대고  
 죽은 새의 눈언저리에 대고  
 꺾꺾 눌러썼다.

우드득우드득  
 무릎 관절 맞추며 붙이며  
 죽은 것들이 일어섰다.  
 지금도 흙바닥에 대고 시를 쓴다.  
 죽음도 사랑도 절망도 솟구치며 찍혀 나오는  
 미어지는 종이 위에 꺾꺾 눌러쓴다.  
 몇 자 못 쓰고 부러지는 연필 끝에

8) 「요한복음」 8장 7절.

침 대신 두근거리는 피를 바른다.  
시에서 늘 비린내가 풍겼다.  
- 「땅에다 쓴 시」 전문

시인도 마치 예수처럼 “땅바닥에 대고 시를 썼다”. 땅은 부드러운 종이와는 달라 “돌 짝도 흙덩이도 부서진 사금파리도/그대로 찍혀” 나온다. 그런데 그것들은 한결같이 “울통불 통했던 내 것들”과 그대로 상응한다. 자신의 시도 그렇지 않았던가. 가령 시인의 시작(詩作)은 “삐뚤삐뚤 한글 자모가 나가고/미어진 종이 위에서/연필은 몇 자 못 쓰고 늘” 부러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때 씹혔던 “죽었던 내 부스러기들”은 “더 이상 세상에 매달리지” 못 하면서 땅바닥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시인은 그 죽은 흔적들에 대고 시를 “꼭꼭 눌러” 썼던 것이다.

그때 “우드득우드득/무릎 관절 맞추며 붙이며/죽은 것들이 일어섰다”. 구약의 에스겔에 나오는 유명한 뼈들의 소통과 재생 과정이 아름답게 인유되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흙바닥에서 “죽은 것들”을 일으키고 있다. “죽음도 사랑도 절망도 솟구치며 찍혀 나오는” 시를 쓰면서 말이다. 여기서 “침 대신 두근거리는 피를” 연필에 바르며 쓴 최문자 시편은, 그 스스로 ‘상처’를 증언하고 ‘치유’를 실현하는 종교적 상상력에서 씌어진 것이다.

최문자 시인은 최근 어느 대담에서 “앞으로는 단 한 권의 시집을 낼 계획입니다. 이 시집은 굉장히 많은 샘플이 고인 다음에 낼 것입니다. 맑은 사유의 샘플이 고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sup>9)</sup>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게 최문자 시학은 성서와의 일관된 상호텍스트성 속에서 신(神)과 소통하면서, 고통과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것을 갈등과 불화로 겪어 내면서, 궁극적으로 치유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 4. 종교적 상상력의 시적 승화

시가 근원적으로 ‘원초적 통일성’을 회복하려는 것은, 주체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험으로부터 그것의 통합적 국면을 피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계와 주체가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상실된 근원적 감각을 탈환하고 회복하는 통로를 주체의 신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대등한 차원의 연관성 속에서 찾는 것을 뜻한다. ‘종교적 상상력’은 그 첨예한 사례이다.

그 가운데 박이도 시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소망과 지혜에 대해 쓴 결과이다. 그의 시는 한결같이 인간과 삶의 원형에 가까운 언어적 형상이다. 우리는 이 정결하고도 고독한 구도적 자아를 통해 자연과 인간, 신성과 인간이 삶의 경계에서 만나는 시적 승화를 경험하게 된다. 최문자 시편은 종교적 상상력의 시화(詩化)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는데, 최근에 그는 생의 통증과 상처를 증언하고 그것을 종교적 상상력으로 견디고 치유하는 상징 제의(祭儀)를 아름답게 보여주었다. 이 두 중진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속악한 근대주의의 미망에 대항하는 근원적 구경(究竟)의 대안 시학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종교적 상상력, 신성, 승화, 인유

9) 「상처의 습곡에서 솟아오르는 샘플」,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2007년 1-2월호.

투 고 일 2008년 4월  
25일 |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5일 |

## <인용문헌>

- 김용직 외 편, 『문예사조』, 문학과지성사, 1983.  
김우규 편저, 『기독교와 문학』, 종로서적, 1992.  
김우창, 『지상의 척도』, 민음사, 1981.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지성사, 1984.  
김희보, 『한국문학과 기독교』, 현대사상사, 1979.  
박이도,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예전사, 1994.  
소재영 외,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신익호, 『기독교와 한국 현대시』, 한남대학교출판부, 1988.  
임영천, 『기독교와 문학의 세계』, 대한기독교서회, 1991.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최규창, 『한국 기독교 시인론』, 대한기독교서회, 1984.  
한국문학과종교학회 편, 『문학과 종교의 만남』, 동인, 1995.  
James W. Sire(김현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5.  
Paul Tillich(김경수 역), 『문화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1.  
Sidney Alexander Burrell(임희완 역), 『서양 근대사에서 종교의 역할』, 민음사, 1992.

<Abstract>

## Poetic Sublimation of Religious Imagination

Yoo, Sung-ho  
(Hanyang University)

Poetry essentially chases recovery of 'basic unity', because poetry has a character to try combined phase from experience divided as the subject and the world. It was that an understanding method which the subject and the world have fixed continuance, we sought the retaking and recovering passage of lost and basic sense from not the subject's faith but relation of things' level. Religious imagination is a sharp example.

Park I-do's poems were results on universal hope and wisdom of people. His poems always were linguistic figures closed by the original form of human and life. We could experience literary sublimation meeting the nature and human, and divine nature and human at a boundary of life from a pure, lone and seeking ego.

Choi Mun-ja's poems were interested in poetizing religious imagination. Nowadays she expresses pain and hurt of life, she beautifully shows a symbolized ritual which she endures and cures them with religious imagination.

When religious imagination expresses, it becomes a kind of poetic form. Then poem and religion have the same relation in language form. As the structural same, similarity of the world pursued and realized by it, suggest possibility of religious imagination in poems. These religious imagination comes into appear details such as spirituality pursuit, transcendence will, divine recovery, and existence confession. Park I-do and Choi Mun-ja are the perfect examples.

**Key Words:** Religious Imagination, The Sacred, Sublimation, Allusion

